

'뜻밖의 미술관' 서 만나는 마을 역사

전주시, 7월 16일까지 '노송도팔연폭' 전시전 개최... 주민 기증·대여한 전주역·점빵 등 사진들로 꾸며

성매매업소에서 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뜻밖의 미술관'에서 이 일대 주민들을 통해 옛 전주역과 점빵 등 마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

전주시와 문화적 도시재생 인디 사업단(대표 장근범)은 지난 25일 서노송예술촌 내 뜻밖의 미술관에서 '노송도팔연폭(老松圖八連幅)' 전(展)의 오픈식 행사를 했다. 이번 기획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작은미술관 전시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노송도팔연폭은 조선 순조 때 화가 허유가 그린 한 그루의 소나무를 팔연폭에 담은 그림이다. 이번 전시회는 이를 모티브로 삼아 노송이 많았던 마을의 역사적 배경을 각기 다른 8개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들로 꾸며졌다.

사진들에는 ▲옛 전주역이 있던 마을 풍경 ▲골목길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살았던 가옥의 모습 ▲가족 ▲생애 ▲학교 ▲정원이 있는 마당 ▲간판 없는 점빵 등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기증·대여해 의미



지난 25일 김승수 시장이 서노송예술촌 내 '뜻밖의 미술관'에서 전시회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를 더했다. 또 마을 주민 도슨트로부터 작품 설명을 받으며, 그들의 생애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노송, 노송, 노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

시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일요일과 월요일, 공휴일은 휴관한다.

이와 관련 문화적 도시재생 인디 사업단은 서노송동 관련 사진에 대한 기

증 및 대여를 접수받고 있다. 기증 및 대여는 문화적 도시재생 인디 사업단 전화(063-287-1141)로 하거나 뜻밖의 미술관 현장에서 가능하다.

완산구 불왕골2길 3-6에 위치한 뜻밖의 미술관은 시가 과거 성매매업소로 사용됐던 건물을 사들여 문화예술가들을 위한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지난해 12월 조성했다. 시는 올해 3월 명칭제정위원회를 열어 성매매업소였던 골목길에 미술관이 들어선 점에 착안해 이 건물 이름을 '뜻밖의 미술관'으로 지었다.

전시회 참여한 주민 권이순 씨는 "예전 노송동 사진들을 통해 마을과 가족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뜻깊고 의미 있는 전시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뜻밖의 미술관은 성매매업소였던 선미촌이 예술촌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이 공간을 마을 주민의 기억과 역사로 채우고 지역 예술가들의 소통공간으로 바꿔나가면 모두가 찾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한지패션대전' 폐막

전주패션협회·전주MBC 유튜브서 공개

전주시와 (사)전주패션협회(회장 최경은)이 함께 개최한 '2021 전주한지패션대전'이 2주간의 여정을 마치고 지난 26일 전주교육대학교 미술실과 2층에서 폐막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전주한지패션대전은 지난 12일부터 팔복예술공장 등에서 전주한지국제패션쇼, 제17회 한지패션디자인경진대회, 디자이너초청 한지패션 갤러리, 세계 어린이 민속의상 한지패션쇼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지패션, 지속가능 미래를 꿈꾸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전주한지패션대전은 지속가능한 패션 소재로서의 한지사를 대내외에 알리고 지속가능한 한지 패션의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을 표현하고자 집중했다.

이날 폐막식에서는 신진 패션디자이너 발굴을 위해 치러진 제17회 전국한지패션디자인경진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이 대회에는 총 184개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79개 작품만이 본선에 진출했다.

대상으로는 정우진 씨가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금상(전북도지사상)에는 차지연 씨와 유재명 씨, 은상(전주시장상)에는 이송희 씨와 배서현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패션소재로서의 한지와 한지사에 대해 알아보는 전문특강과 패션업계 선배 디자이너로부터 진행되는 진로특강, 토크콘서트도 이어졌다.

연사자로는 제륜옴브 소속의 황재근 디자이너가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얻은 노하우를 후배 디자이너들에게 전달했다.

2021 전주한지패션대전 영상은 28일 낮 12시부터 (사)전주패션협회 유튜브 채널과 전주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장애인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위한 정책과제 제시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근로사업장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하고 의무고용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전주시는 지난 25일 전주시청에서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관련 전문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11월 연구용역에 착수한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그간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조사, 장애인 일자리 욕구 및 실태조사, 국내외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발전방안 마련에 주력해왔다.

이날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장애인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통해 전주시 노동통합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전주시 장애인 고용 정책 수립 ▲장애인 고용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인프라 보완 ▲장애유형별 일자리 정책 수립 ▲민간 기업 ESG 연계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연도별 실행방안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활성화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와 취업 활성화 ▲중앙정부 정책 연계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 18개 세부 사업을 설정했다.

대표적으로 근로사업장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장을 통해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고, 근로사업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기업형 시설로 가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관점의 직업재활시설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는 제안이 강조됐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전주시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기능 확대 ▲장애인 원스톱 지원공간 마련 ▲장애인 일자리 전담인력제도 신설 ▲전주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마련 등의 핵심사업이 제안됐다.

시는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담당부서별 실행가능성 여부



전주시는 지난 25일 전주시청에서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관련 전문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올 예산 편성 전까지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선5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장

래인 일자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고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지속 고용을 도와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건물 해체공사 관리 제도개선 국토부 건의

전주시는 철거공사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4가지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북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최근 건축물 해체 공사현장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이번에 건의한 4가지 제도개선 방안은 ▲신고대상 해체공사의 감리제도

도입 ▲허가대상 해체공사의 상주 감리제도 도입 ▲대규모 해체공사 심의제도 도입 ▲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 강화 등이다.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도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해체공사 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고 해체공사장에는 감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메타버스' 권위자 초청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최근 3차원 가상공간을 의미하는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메타버스 권위자를 초청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25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 시대, 메타버스의 이해 및 전주시 메타버스 적용방안'을 주제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메타버스는 가상,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분야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시는 책 '메타버스'의 저자인 김상균 강원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를 비대면으로 초청해 ▲국내·외 사례를 통한 메타버스의 이해 ▲전주시 관광·스마트시티·디지털경제 등 전주시 메타버스 활용을 위한 제언 등에 대해 교육을 들었다.

김상균 교수는 "메타버스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메타버스 기반의 사업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